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7/21~7/27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조선이여 법의 등불을 밝혀라	원행 스님	불교신문사	6	현실은 영원이다	지광	위로
2	요가디피카	현천 스님	선요가	7	부처님 건강법	현담 스님	선
3	지옥에서 연꽃을 피운 수도자 아내의 수기	변영희	바른법연구원	8	화엄경을 머금은 법성게의 보배구슬	김성철	오타쿠
4	티벳스승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 (컬러)	초펠	하늘호수	9	진리와 자유의 길	법정 스님	자식을 만드는 지식
5	술술 읽으며 깨쳐가는 금강경	하도겸/정호선 외	운주사	10	모든 발걸음마다 평화	틱낫한	불광

책세상

코로나 시대 건너는 영혼 백신, 생명동화



스님 바랑 속의 동화
정찬주 지음
다연 펴냄
1만5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성철 · 법정 · 경봉 · 구산 큰스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큰스님들이다. 세속에 물든 일반인들이 범접하기 힘든 높은 경지에 올라 삶의 깊은 깨우침을 몸소 실천하고 설파한 선지식들이다. 당신들의 큰 사랑은 산중의 뭇 생명에게도 경계를 짓지 않았다. 산짐승과 스님 사이에 맺은 신비로운 인연은 신산한 우리 삶에 깊은 통찰을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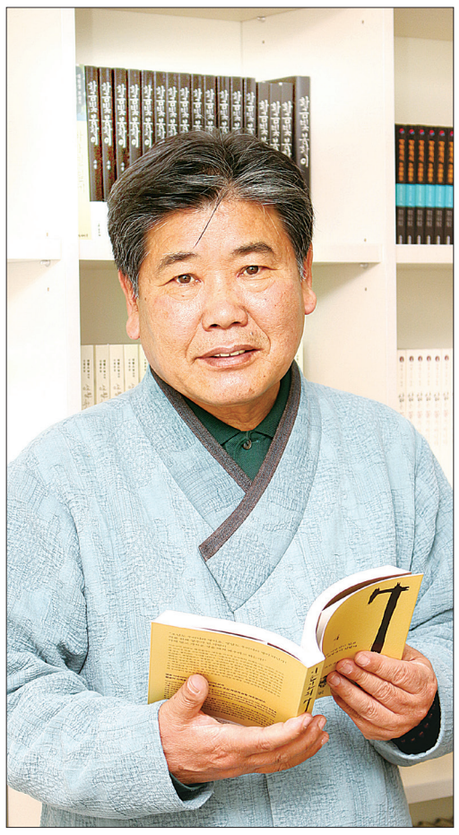
이 책의 저자 정찬주 작가(오른쪽 사진)는 법정 스님에게서 '세속에 있되 물들지 말라'는 뜻으로 무염(無染)이란 법명을 받은 각별한 재가제자다. 저자는 이번에 법정 스님서 수불 스님까지 큰스님 열네 분의 자비와 사랑,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엮어냈다. 모두 큰스님들이 직접 전해준 이야기이거나 큰스님을 모신 상좌 스님들에게 들은 주옥같은 감로법문 들이다. 상상력의 날개를 단 허구가 아니라 실제 스님들의 일화를 풀어냈다는 점에서 이 책은 더욱 각별하다.

책에 등장하는 열네 분 큰스님들은 산중서 산승으로 평생을 살면서 뭇 생명에 두루 자비와 사랑을 베풀었다. 다람쥐, 토끼, 박새, 멧돼지 등을 도반이듯 살뜰하게 보살피고, 동물뿐만 아니라 억새나 개울가 바위에 낀 이끼나 오솔길을 불편하게 하는 나무 한 그루도 베지 않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아름다운 색감의 그림과 글을 읽

14명의 선지식들 깊은 통찰 조명
"산중 뭇생명조차 경계짓지 않아"
자비, 사랑, 지혜에 관한 이야기

다 보면 영혼이 정화되는 듯하다.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해가는 사막 같은 시대'에 온 가족이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따뜻한 동화다.

갈수록 각박해가는 우리 사회가 주는 마음의 상처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생명을 경시하고 자비와 사랑에 인색한 풍조가 만연하다. 마음이 콘크리트처럼 딱딱하게 굳어갈 것만 같다.



이 책은 동화 형식을 빌려 남녀노소 누구나 읽으면서 마음의 평화와 안식을 얻을 수 있게 한다.

큰스님과 뭇 생명 사이의 순수한 이야기로 잊었던 사랑과 배려, 생명 존중을 되살린다. 법정 스님이 휘파람을 불면 오동나무 구멍서 나와 허공에서 묘기를 부리듯 공중제비를 돌던 호반새, 모든 생명이 소중하다며 누더기 속의 이와 벼룩에게 자신의 몸을 내주던 구정 스님, 평소 밥 한 덩이를 내어 준 구산 스님에게 은혜를 갚은 산토끼 등 사랑과 자비로 충만한 이야기들이 풍성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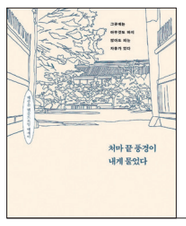
동화 형식 빌려 생명존중 조명해
온가족 함께 있는 따뜻한 동화로
아름다운 일러스트 삽화 돋보여

정찬주 작가는 식구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이 동화를 함께 읽음으로써 자비와 사랑, 지혜의 싹이 자라나는 계기가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며 이 책을 쓴 계기를 밝혔다. '바랑'은 승려가 등에 지고 다니는 자루 모양의 큰 주머니를 일컫는 말이다. 저자가 큰스님들의 바랑 속에서 직접 꺼내온 아름다운 동화를 통해 삭막해가는 세상 속에서 한줄기 청량한 위로를 받고 또 앞으로 살아갈 용기를 내보자.

이 책 1장 〈스님 바랑에서 꺼낸 자비〉는 법정 스님, 혜암 스님, 경봉 스님, 구산 스님, 혜국 스님의 뭇 생명에 대한 자비 이야기이고, 2장 〈스님 바랑에서 꺼낸 사랑〉은 성철 스님, 혜국 스님, 수월 스님, 경허 스님, 지장 스님의 뭇 생명에 대한 사랑 이야기이다. 이어 3장 〈스님 바랑에서 꺼낸 지혜〉는 청담 스님, 구정 스님, 혜통 스님, 수불 스님의 뭇 생명에 대한 지혜를 들려준다. 작가 정찬주는 1983년 〈한국문학〉 신인상으로 등단한 이래 지금까지 줄곧 깨달음을 얻기 위해 정진하는 수행자들의 정신세계를 탐구해왔다. 그런 그가 지금까지 직간접으로 가르침을 받았던 큰스님들의 신비로운 일화들을 모아서 펴낸 가족이 함께 읽는 가슴 따뜻한 동화다. 그저 책장을 넘기다 보면 세상살이에 지쳐 점차 사그라들던 사랑과 자비, 연민의 감정이 되살아난다.

영국 킹스턴대학교서 일러스트를 공부한 일러스트레이터 정윤경의 아름다운 삽화들은 큰스님들이 베푸는 자비로운 마음의 아름다운 결을 부드러운 색채를 이용해 그대로 지면에 옮겨 놨다. 스님과 동물들을 따뜻하게 포착한 그림만 봐도 싱긋 미소가 절로 지어진다.

절에서 찾은 자신의 '마음 서랍'



처마 끝 풍경이 내게 물었다
배종훈 지음
담앤북스 펴냄
1만 6천원

소란한 일상의 틈바구니 속에서 정신없이 부대끼다 보면 고요하고 여유로운 공간과 시간이 절실해지는 때가 온다. 그럴 때 많은 이들은 절에서의 하룻밤을 꿈꾼다. 계절이 바뀌면 계절이 바뀌는 대로, 자세히 살펴보면 볼수록 그 매력이 다양한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그곳에서 배종훈 저자는 비슷비슷해 보이는 사찰의 숨겨진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즐거움을 찾았다.

이후 한 달에 한 번, 카메라와 그림 도구를 챙겨 사찰 구석구석의 모습을 기록하러 떠난 지 벌써 2년이 훌쩍 넘었다. 약 30곳이 넘는 전국의 사찰을 다녀온 저자는 앞으로 100곳의 사찰을 방문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한다. 자꾸만 그가 절로 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절에서 저자는 어떤 풍경들을 마주하고 어떤 생각들을 눈에 담았을까?

국어 선생님, 서양화가, 일러스트레이터, 만화가, 여행작가, 그리고 중학교 국어교사. 저자를 가리키는 수식어는 다양하다. 안 그래도 번잡한 세상, 1인 다역을 소화하면서 일상의 어떤 '틈'을 갈망하게 되었다는 그는 느리게 흘러가는 사찰의 곳곳을 저자 특유의 그림체로 기록하기 시작한다. 어떤 것을 오래 바라보게 되면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계단 옆 돌수반에 핀 연꽃의 문양, 햇빛의 움직임에 의해 시시각각 바뀌는 마애불의 표정, 석탑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자신의 원을 전하는 사람들의 간절한 표정까지. 낮에는 낮의 고요함이 깃들고 밤에는 까만 어둠을 덮은 정적이 가득한 사찰의 풍경에 집중하며 저자는 차차 자신의 소란한 마음과 번잡한 생각을 비워내는 연습을 한다.

저자가 바라보는 풍경은 두 가지다. 하나는 절 구석구석의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또 하나는 꽉

저자, 2년전부터 전국의 사찰 답사
사찰 30곳 방문…"100곳 답사목표"
저자 특유의 그림체로 사찰들 기록
일상과는 다른 사찰만의 매력 소개

차 있는 자신의 마음 서랍이다. 이런저런 계산들과 소란함으로 잔뜩 채워져 틈이 없어진 좁은 마음은 특별한 것 하나 없이 그저 고요함과 느리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둘 비워져간다.

1부 '부처님을 닮은 그곳'은 저자의 시선으로 보고 담은 절의 소박하고도 정감 있는 풍경을 성실하게 기록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사찰을 향해 가는 길에서 느낄 수 있는 계절마다의 아름다움, 처마 밑에 매달린 풍경이나 오래된 석물과 빛이 바랜 탱화, 절 마당에 자리 잡은 무영탑 하나, 소박한 문구가 새겨진 돌기둥 등 절 곳곳에서 발견한 것들, 그리고 절이 자리 잡은 곳 주변의 자연풍광까지 "부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 대한 애정 어린 기록들로 가득하다.

2부 '처마 끝 풍경이 내게 물었다'에서는 자신에게 말을 건네는 그 모든 것들에 소란한 마음을 비춰보는 사색적인 글들을 모았다.

절에서 마주한 풍경들을 바라보는 저자의 시선은 결국 자신의 마음 안으로 향한다. 한구석에 자리한 불확실성, 불안감, 크고 작은 슬픔들, 휴식에 대한 갈망 등 다양한 모습들로 제각기 쌓인 마음을 풍경에 비춰보며 그는 점점 그 특별할 것 없는 풍경들에 마음의 온기를 느낀다. 자신이 일상에서 그토록 아파하고 조급해했던 문제들에서 잠시 떨어져 그것을 바라보며 잠시라도 '작은 나'가 아닌 '큰 나'가 되어보기도, 무너져도 다시 쌓고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를 얻기도 한다.

이 책은 그가 바라보고 기록한 절의 풍광과 비슷하다. 특별할 것 없이 비슷비슷한 절의 모습들에서 특별함을 발견한 그처럼, 독자들은 그의 글과 그림을 감상하며 점점 일상의 시간과는 다른 속도로 흘러가는 절만의 특별한 매력을 느끼게 될 것이다.

온통 소란한 것들로 가득차 있는 일상에 조금의 위안을 얻고 싶거나 작더라도 아주 조그만 틈이 필요한 모든 독자들에게 〈처마 끝 풍경이 내게 물었다〉는 느린 듯 밀도 높은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김주일 기자

